

## 7. 住宅建設物量調整內譯

資料提供：建設部

- 건설부는 7월 23일부터 주택건설적정관리대책을 일부 완화하여
  - 그동안 물량의 적체가 심했던 서울, 인천, 대전, 경기, 강원, 충남, 전북, 경남등 8개시도에 한하여 시도지사가 지역별 실정을 감안하여 4/4분기물량의 35% 범위내(약 3만호)에서 3/4분기에 앞당겨 사업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.
- 금년 2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택건설적정관리대책은
  - 금년도 주택건설을 우리경제의 능력에 맞게 50만호 수준에서 유지하고 이 물량이 시기적·지역적으로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
  - 주택건설이 물가안정과 국제수지개선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시행하고 있는 조치로서
  - 상반기중에는 당초목표 260천호 대비 254천호수준을 유지하였으나 대기중인 물량이 많아 일부시도에서는 관리상의 어려움이 매우 큰 실정임.
- 특히 대전, 경기등 8개시도는
  - 6월말현재 사업승인을 대기중인 물량이 3/4분기중에 사업승인해줄 수 있는 관리물량보다 많아 이들중 상당수가 상반기중 사업승인이 중단된바 있으며
  - 이에따라 주택건설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택지공영개발사업추진이 곤란해지는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하반기에 들어서면 이러한 문제점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어
  - 우선 이들 8개시도에 한하여 4/4분기물량의 35%범위내에서 3/4분기에 앞당겨서 사업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하는 것임.
- 이에따라 당초 3/4분기와 4/4분기의 관리물량은 각각 12만호였으나
  - 3/4분기중 3만호정도가 추가된 15만호까지 사업승인할 수 있게 되었고 4/4분기에는 당초부터 3만호가 감소한 9만호수준에서 관리될 전망이다.
  -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초의 주택건설목표물량 50만호는 유지할 계획임.

## 물량조정내역

지역	3/4분기 배정량 (A)	대기물량 (6. 30일 현재)	4/4분기 배정량	4/4분기 35% (B)	3/4분기 관리가능물량 (A+B)
계	120,000	189,484	120,000	29,370	149,370
서울	21,502	68,070	21,502	7,526	29,028
부산	9,699	4,473	9,699	—	9,669
대구	6,149	—	6,149	—	6,149
인천	6,111	11,694	6,111	2,139	8,250
광주	3,712	3,675	3,712	—	3,712
대전	5,237	10,737	5,237	1,833	7,070
경기	28,181	43,255	28,181	9,863	38,044
강원	3,074	4,534	3,074	1,076	4,150
충북	3,729	3,175	3,729	—	3,729
충남	3,735	9,470	3,735	1,307	5,042
전북	4,820	11,231	4,820	1,687	6,507
전남	5,178	3,036	5,178	—	5,178
경북	6,500	1,796	6,500	—	6,500
경남	11,253	14,132	11,253	3,939	15,192
제주	1,121	206	1,121	—	1,121